

소·부·장 으뜸기업 23곳 선정 글로벌 기업 육성 ‘밀착지원’

산업부, 5년간 기술개발 등 지원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적용키로

“소부장 자립화 성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방안 더 촘촘히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 23개사를 새로 선정했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150개) 분야 국내 최고의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22개사를 최초 선정한 이래 올해까지 총 66개사가 선정됐다. 정부는 선정된 기업에게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반도체(9개사), 디스플레이(4개사)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전략분야 관련 기업이 다수 선정됐다.

으뜸기업에게는 향후 5년간 범정부 차원의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한다.

산업부는 1·2기 으뜸기업에 평균 3~4년간 100억원 내외 규모로 진행된 으뜸기업 전용 연구개발(R&D)을 비롯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해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실증 평가, 정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적용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 으뜸기업 지정식’ 축사를 통해 “우리 산업의 근간인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해 소부장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급망으로 밀접한 국가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기술개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해 기술 확보, 생산역량 확충, 협력의 생태계 조성 등 소부장 자립화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소부장 자립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

심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더욱 촘촘히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도전적 R&D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화·수출까지 패키지로 일괄 지원하며 국가첨단산업단지는 물론 소부장 특화단지도 추가로 지정해 소재 부품장비의 글로벌 혁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4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이번 한일정상회담 및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을 계기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및 공급망 공동 대응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핵심 원자재 및 에너지를 해외에 주로 의존하는 양국의 협력은 양국 공급망 안정성 및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 차관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신산업 분야 공급망 및 기술협력, 저탄소 철강 생산기술, 친환경 선박기술 등 탄소중립 공동 협력, 양국 경제계의 교류 협력사업 및 산학연 간 공동 R&D 및 기술인력 교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화진 환경장관, 美 UN 물 총회 참가

본회의서 기조연설 등 일정 소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현지 시간)부터 24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2023 유엔 물 총회에 참가한다.

유엔 물 총회는 1977년 아르헨티나 마르 델 플라타에서 유엔 내 물 관련 논의를 최초로 시작한 이후 46년만에 열리는 공식 회의다. 네덜란드와 타지키스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총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물 행동 10년(2018~2028)의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중간 점검을 위한 자리로, 유엔 회원국 정부, 유엔·국제기구, 학계·비정부기구(NGO)·기업 등 물 관

련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된다.

한국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아시아물위원회,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래밍 한국위원회, 한국물포럼, 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한다.

한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본회의 기조연설 ▲‘물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SDG6)’ 달성 촉진 정부간 세미나 ‘및’ 과학기반 글로벌(국제사회) 물 평가’ 고위급 회의 참석 ▲환경부-세계자연보전연맹(IUCN)-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신하은 기자 godhe@

고용부, 中企에 재택 등 유연근무제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간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독려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23일부터 희망 기업을 모집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 유연근무 시 필요한 프로그램 등 인프라 구축비도 최대 2000만원도 지원된다.

재택근무 도입에 관심 있는 사업장

400곳에 대한 무료 컨설팅도 진행된다.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어도 경험 없이 망설이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제공된다. 올해는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간 1차 신청을 받고, 앞으로 총 4차에 걸쳐 희망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컨설팅 내용은 ▲도입범위, 운영방식, 적합직무 분석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재택근무에 필요한 정보기술 기반 구축 ▲기타 재택근무 지원사업(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및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과의 연계 지원 등이다.

/신하은 기자

쌈·샐러드에 활용... ‘수삼’ 소비촉진 나서

농진청, 수삼 소비확대 방안 제시
‘기능성 채소’로 활용방법 제안

농촌진흥청이 소비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외면받아온 수삼을 기능성 채소처럼 유통시켜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한다.

농촌진흥청은 22일 인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삼 구매와 섭취 방식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진행하고, 소비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인삼은 주로 홍삼류와 음료 등 가공품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가공하지 않은 인삼인 ‘수삼’ 소비는 줄고 있다.

실제로 약 10년 전에는 전체 인삼 소비량의 50% 이상을 수삼이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21.2% 수준에 그쳤다. 주로 인삼 매대시장 등에서 수삼을 판매하다 보니 접근성과 활용성이 떨어지고, 수삼을 가공용 소재로만 인식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은 수삼이 기능성 채소

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연구하고자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수삼 구매와 이용 방식, 채소로써 활용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수삼을 구매한 적이 없는 응답자가 70% 이상에 달했다. 수삼 구매를 망설이는 요인으로 ‘활용법을 모르겠다(46%)’, ‘가격이 비싸다(24%)’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깨끗하게 씻은 수삼을 적은 양씩 나눠 포장한 뒤 채소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직접 먹어보게 한 결과 응답자의 58%는 ‘시식하고 난 후 채소로 수삼을 구매할 의향이 높아졌다’라고 답했다. 또 94%는 ‘삼계탕에 넣는 수삼(3년근)처럼 크기가 약간 작고 저렴한 수삼은 채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답했으며 68%는 깨끗하게 씻어 별도 용기에 담아 유통하면 구매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삼 간편활용법으로는 ▲수삼을 마늘처럼 썰어 고기류를 먹을 때 쌈의

고명으로 곁들이는 방법 ▲잘게 썰어 초무침에 넣거나 ▲샐러드 위에 올려 먹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특히 40대 이상, 주로 음식을 조리하는 소비층에서는 기존 생각과 달리 채소로 섭취한 수삼이 매우 맛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수삼을 육류, 튀김류에 곁들이면 고급스럽고 건강한 느낌을 줄 것 같다는 의견, 다양한 조리 방법이 알려지고 구매가 쉬워진다면 기능성 식재료로 널리 활용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홍윤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장은 “인삼은 피로 해소와 기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명품 농산물로 세척, 포장, 유통 방식을 달리 하면 소비 변화를 충분히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며 “농촌진흥청은 수삼을 채소처럼 유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올해부터 품질 관리와 상품화 기술을 산지유통센터에서 실증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검찰, 전두환 손자 폭로한 ‘비자금 의혹’ 수사 착수 /사진 뉴시스
▲ 중고거래 사기로 200명에게서 1억원 뜯은 30대...경찰 체포

▲ 광주 학생들 유네스코 본부서 “인종 차별 없는 세상” 외침
▲ JMS 정명석, 구속 5개월간 265회 접견...일 평균 1.7회



▲ “민원 넣겠다” 협박...건설현장서 1000만원 뜯어낸 노조원 4명 입건
▲ 이태원 참사 유족 “금융조치 이유 뭐냐”...검경 사과 촉구 /사진 뉴시스